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복 희

2012년 8월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정 환

김 복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김복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국문초록>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김 복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¹⁾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는가?

본 연구를 위하여 ○○시에 있는 ○○통합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급 학생 8명 중 중복 장애학생을 제외한 지적장애 학생 5명을 선정하여 사전 자아존중감 검사를 하였으며,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0일 까지 주2회 8회기의

노래 중심 집단음악프로그램 활동을 적용하고 사후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은 박연희(2007), 어유란(2008), 신은용(2009)의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중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 참조하여 재구성한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척도 사전·사후 검사를 하여 평균 점수의 변화와 네 가지 하위영역인 일반적, 가정, 학교,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양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 < .01$, $P < .05$ 수준에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행동에 변화를 알아보고자 동영상과 관찰 기록을 통해 개인별로 변화된 과정을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을 실시하기 전 · 후에 자아존중감을 실시한 결과, 사전 검사 점수(.51)보다 사후 검사 점수 (.74)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p < .000$)를 보였다.

둘째,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을 적용 후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네 가지 하위영역에서 일반적 자아존중감($p < .001$),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p < .011$),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변화($p < .034$)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변화($p < .374$)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처럼 연구결과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노래중심 집단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구안과 적용 과정에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요인인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보완된다면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더욱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7
2. 자아존중감과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11
3. 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의 적용	17
4. 선행연구 고찰	26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실험설계	31
3. 연구도구	32
4. 연구절차	35
5. 자료처리	36
IV. 연구결과 및 해석	37
1. 자아존중감(전체)에 미친 효과	37
2. 하위영역별자아존중감에 미친 효과	41
V. 논의, 결론 및 제언	57
1. 논의	57
2. 결론	61

3. 제언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8
부 록	70

표 목 차

<표Ⅲ-1>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구성	25
<표Ⅲ-2> 연구대상 장애학생의 장애진단 결과	28
<표Ⅲ-3> 프로그램 진행 절차	32
<표Ⅲ-4> 자아존중감 문항 구성	34
<표Ⅲ-5> 연구절차	35
<표Ⅳ-1> 자아존중감(전체) 사전·사후 t검증 결과	38
<표Ⅳ-2> 개인별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39
<표Ⅳ-3>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	42
<표Ⅳ-4>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	44
<표Ⅳ-5>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	50
<표Ⅳ-6>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	53

그림 목 차

[그림Ⅲ-1] 실험설계의 구성	31
[그림Ⅳ-1] 개인별 자아존중감(전체) 사전·사후 측정 결과	39
[그림Ⅳ-2]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43
[그림Ⅳ-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46
[그림Ⅳ-4]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51
[그림Ⅳ-5]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물질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평가 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를 하게 되거나, 기능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 하게 되어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회풍토를 낳게 하였다. 또한 성적과 외모를 우선시하고 능력을 우선시 하는 청소년들(박재찬, 2011) 사이에서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장애청소년의 따돌림’과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심리적인 위축과 열등감이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김정은, 2003). 이러한 현상들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들도 소홀히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 연구가 많다(남정자, 1991; 문정주, 1991; 원호택, 1993).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Rosenberg, 1978) 자아존중감이란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기(Erikson, 1959)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자기인식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삶을 적절히 통제하고 모험을 하려는 의지가 많으며 스스로를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잘한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의기소침의 가능성과 낮은 행복감을 가지기 쉬우며,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불안이나 짜증, 공

격성, 충동성의 경향이 강하여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고립적이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자기 평가 때문에 소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행동을 지향하기도 한다(문성주, 1991; 최윤희, 1993).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청소년의 경우 선천적·후천적인 지적 능력의 결함으로 언어 능력, 통찰 능력, 판단력 등에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낮은 인지기능으로 인해 상황판단능력이 결여되어 문제해결 능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며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정서는 불안정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타인과의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김영희, 2004).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언어적 능력의 결핍과 자기 관찰기술의 결여로 인하여 자아개념 수준이 현저히 낮고(Balla & Zigler, 1979), ‘나는 잘못된 점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 ‘나는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 ‘나는 조금씩 행동 한다’, ‘나는 부끄럽고 왜소하다’, ‘나는 무용지물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Guthrie, Bulter, & Gorlow, 1962)’ 등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적장애 청소년은 현실적이지 않은 자아개념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최소림, 2006).

지적장애 청소년은 지적능력의 결함에도 문제가 되지만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또래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의 실패에 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실패는 타인의 정서 및 사고, 의도 등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사회인지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지적장애 청소년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함으로 인하여 교사와의 상호작용(예: 도움 요청하기, 문제점 이야기하기)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예: 가까운 친구관계)에서도 소외되고 만다. 또한 학교에서의 수행조절 능력 면에서도 대부분의 지적장애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선택하거나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적장애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적장애 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향상을 돕기 위해 놀이치료, 미술

치료, 무용요법, 치료 레크레이션, 스포츠 활동, 원예치료 등 다양한 치료활동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주로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 매체를 이용한 심리치료의 적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박현순, 2005). 특히, 음악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도구로 소리라는 매개체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이며 순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대상의 지능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생리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정현주, 2006). Boxill(1985)은 음악을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동시에 치료적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음악의 비언어적 특성 때문에 가장 강력한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지적장애 청소년의 음악활동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지닌 청소년의 사회생활 능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고(이유진, 2000), 특히, 노래를 통한 집단음악활동은 지적장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서의 순화와 심미적 세계의 경험, 음악성 개발 뿐만 아니라 언어소통의 문제, 지각의 문제, 욕구 불만적 과잉행동, 감각이나 운동 그 자체 등의 교정과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집단 소속감, 자신감,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고(김군자, 1998) 되어있다. 또한, 음악활동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노래중심의 활동은 노래가사와 목소리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내면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노래 창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 성찰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데 가장 용이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선천적, 후천적 또는 환경에 의해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별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

이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실시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은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실시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음악 활동에는 창작, 연주, 감상의 영역이 있다. 그 중에 연주형태는 크게 악기를 통한 연주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한 가창연주가 있다. 가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하기를 들 수 있는데 노래는 다시 창작과 연주, 감상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노래중심이라는 의미는 이처럼 기악의 연주 형태가 아닌 가창연주 형태에서 노래의 창작, 연주, 감상의 부분을 다룰 것이어서 노래중심이란 범위를 정하였다.

집단음악활동은 음악치료나 집단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2명이상이 그룹을 이루어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내담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집단 내에서 극대화된 음악의 힘을 사용한 음악활동을 계획, 시행하는 것이다(강정숙, 2005; 김말희, 2001; 이경숙, 1999; 이상은, 2001; 장호정, 2001; 진소영, 2001). 음악치료는 신체적·정신적·감성적 이상을 지닌 대상을 치료의 목적으로 실시하나,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개선 및 향상에 의미를 둬으로써 음악 치료라는 표현대신 집단음악 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은 노래 만들기, 노래 부르기, 노래감상하기를 활동을 통한 집단음악활동을 말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William James, 1890). 간단히 자존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건전한 성격발달을 이루고 적절하게 환경에 적응해나가며 긍정적인 자아실현을 성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Harter, 1983),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것이다.

Gilmore(1974)는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척도라고 정의하였고, 또한 Watkins(1978)와 Mires(1977)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일상의 대화나 성격 면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 특성이라고 평가적 차원에서 정의하였다(최유선, 2002).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의미하고, 자신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또한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게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상반되는 입장에서는 감정적, 성취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을 언급하여 개인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 자신이라는 일에 대해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James, 1980; Elkind & Weiner, 1978)라고도 정의하였다.

Benaden(1992)는 자아존중감을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이며 생활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경험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역경에 맞서 이겨낼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설명하였다.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유혜종, 2003).

이처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 등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신에 대한 평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지를 이용하였고,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담임교사와 연구자의 설명과 함께 학생 스스로가 답하도록 하여 자아존중감의 네 가지 하위영역인 일반적, 가정적, 학교,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적장애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1) 정신지체와 지적장애

지적장애 문제에 관하여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1913년 (1927년 개정됨)에 정신 결함 법(The Mental Deficiency Act)을 제정하여 “정신 결함은 18세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의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또는 질병과 상해에 의한 불완전한 정신발달 상태(arrested or incomplete development of mind)”로 정의한 바 있다. 1960년대까지 주로 정신박약(feeble-minded)과 정신결함(mental deficiency)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는 치료나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매우 낙인 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1992년 AAMR의 정신지체 용어 및 분류편람 9판에서 승인된 새로운 정의에서는 ‘정신지체란 발달 기에 야기되어 사회적응행동(adaptive behavior)에 장애를 동반한 전반적인 지적기능이 평균수준 이하인 것(subaverage general intellectual functioning)을 가리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지체는 유의하게 평균 이하인 지적 기능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적응적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 영역들, 즉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교과 학습,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며,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나타난다고 정의하였다(민성길, 1999). 정신지체의 타당한 진단은 다음 세 가지 기준에 기초되었다. 첫째, 유의하게 낮은 지능: 표준화된 지능 검사방법에 의하여 대체로 IQ(지능지수)70이하. 둘째, 적응행동의 유의한 결함 또는 장애: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연령에 부과된 개인적 자립성과 사회적 책임감의

기준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화된 검사법과 임상적 판단에 의해 평가되며, 사회지수(SQ)로 표시되기도 한다. 셋째, 18세 이전의 발현:18세 이후에 뇌손상 또는 질병으로 지능저하가 초래되었을 때는 이를 치매라고 진단한다(이상춘, 조인수, 1999;박승희,1997).

과거에는 정신박약 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쓰였으나 2007년 10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지적장애의 분류를 IQ(지능지수)의 점수에 따라 백치·치우(痴愚)·경우(輕愚)·노둔(魯鈍) 등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지적장애인 중에서 경한 자, 즉 IQ가 50~70을 경증이라고 하고, 35~49를 중등도, 20~34를 심도(深度)지적장애인이라고 분류한다. 본 연구 논문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존중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으므로 2010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 법에 따라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명칭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적장애를 정의하면, 2010년 개정되기 이전의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었던 정신지체의 의미를 그대로 따르며, 공식적인 지능검사와 임상적 판단에 근거하여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지능’을 가진 IQ 70미만인 적응기능에서의 결손이나 손상이 18세 이전에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를 말한다.

2) 지적장애 청소년의 특징

지적장애 청소년은 그들의 선천적인 발달의 차이와 후천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의 과정을 거쳐 가게 되고, 각 영역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지적장애 학생들은 자주 실패감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미리 예상하고 실패를 야기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낮은 소망과 목표를 설정하며(Zigler, 1973),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에 대해 열등한 자아개념을 갖는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불신한 결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춘, 조인수,1999).

사회·정서적 발달에는 생활 연령과 정신연령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정신연령은 낮지만 생활연령이 높기 때문에 같은 나이 또래의 생활내용을 배우기 원하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서 부적응하는 등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자기 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내어 주위 사람들로 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Gottlieb Budoff, 1973). 과거에 실패 경험을 했던 장면에서 처하게 되면 욕구불만에 대한 내성(frustration tolerance)이 부족하여 쉽게 좌절하거나 거부하고 공격적인 반응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신체적 발달에서도 정상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체를 나타낸다. 이들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경도 지적장애인은 키, 몸무게에 있어서는 거의 정상인처럼 보이나 운동 능력이나 신체적절성 등의 체 검사에서는 전국기준에 비해 1년~4년 늦고, 단순한 운동능력에서는 정상인과 유사하지만 손-눈 협응을 포함하는 섬세하고 복잡한 운동능력에서 있어서는 정상인과 차이가 크다. 또한 문화적, 가정적 이유로 지적장애가 된 아이들은 신경학적 손상이나 중복장애인보다 운동능력이 현저히 우수하고, 운동능력과 지능과의 상관은 낮은 적극적인 상관을 보인다(Malpass, 1963; Arick, Widdop, Broadhead, 1970, Kral, 1972: Dunn). 말과 언어의 발달은 지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은 정상인들보다 언어장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MacMillan, 1982). 음의 대치와 생략과 같은 조음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그들 사이에서 구어 발달의 지연, 제한된 어휘, 정확하지 않은 문법 사용 등을 포함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

학습 상에서 지적장애인들은 주의 집중 지속시간, 주의 집중 범위와 초점, 선택적 주의에 심함 어려움을 느끼고(Alabioso, 1977), 주어진 투입정보를 재생하기 위해 조직, 구성하는 기술이 부족하다(Spitz, 1966). Belmont(1966)에 의하면 이들의 장기 기억은 정상인에 비교할만하나 단기 기억에 결함이 있다고 조사에 나타난다. 새로운 일이나 문제, 자극상황에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에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선행경험을 미래의 문제해결에 사용하지 못하고(Stephens, 1972),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나 추상적 자료를 가지고 일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Dunn, 1973; Kolstoe, 1976).

따라서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의 신체적 인지적인 결함에서 오는 문제들로 인해 자주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능적,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들을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지적장애인의 자아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게 현실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의 결과는 일관성이 없고 어떠한 결론에 도달한 연구도 거의 없다(송인섭, 1989).

Ricardson, Hastorf 와 Dornsbusch(1964)의 실험연구에서는 장애 어린이의 신체 기능적 제한이 심리적 충돌, 사회적 경험을 박탈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적장애인의 낮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자아존중감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성찰을 통한 수용, 자기 확신, 성취감, 자기충족, 자기만족, 자기에 등이 결여된 것을 말하는데(최병철, 1999), 지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언어적 능력의 결핍과 자기 관찰 기술의 결여로 인해 자아개념의 수준이 현저히 낮고(Balla & Zigler, 1979), 다음과 같은 자아개념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나는 결코 잘못된 점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 ‘나는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 ‘나는 조금씩 행동한다,’ ‘나는 부끄럽고 왜소하다.’ ‘나는 무용지물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개념을 볼 때 지적장애인은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개념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Guthrie, Bulter & Gorrlow, 1962).

지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연구로 Mans(1978)은 정상 발달에 가까운 지적장애아동은 비장애아와 발달 연령을 일치시킬 경우 유사한 자기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일치되는 발달을 보인다고 하였고, Simpson & Chery Imeaney(1979)는 훈련 가능 급 지적장애아동일지라도 최소한의 인지적 능력이 남아있다면 자기개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개념은

자신이 가진 문제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의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므로, 반복 학습된 실패의 경험에서 벗어나며 허용 적이고 수용적인 신뢰적 환경을 조성하여 성취감을 갖게 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자기개념은 향상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의 부정적인 자아태도는 그들의 선천적인 장애에서 기인한 요인과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 이므로 그들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성공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화에 필요한 적합한 태도의 형성과 동기 및 욕구를 강화하고 현실화하며 자신감과 통제력 향상을 시도하게 된다면 그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아존중감과 노래 중심 집단음악활동

1) 자아존중감과 음악활동

최근까지 음악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음악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연구들을 통해서 자아존중감과 음악활동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김미성(2001)의 연구에서는 시설의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음악의 자발적 발표를 통한 음악적 상호작용의 결과 아동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었고, 아동이 정서와 심리를 반영한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서적 문제가 있는 시설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연(2001)의 연구에서는 음악활동 프로그램 후 그룹 음악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자아개념을 측정한 결과 각 집단 간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음악활동이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해 주었고, 나미희(1999)는 적극적인 음악 만들기, 율동, 악기연주와 즉흥연주로 구성된 치료적 음악활동이 일반 노인의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수경(1999)은 집단 음악 활동으로 알코올 환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Johnson(1981)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통해 자아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Kivland(1986)은 행동장애로 진단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하여 자아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고 보고 이현림과 김영숙(1996)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에게 합창 활동을 통해 그룹 안에서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많이 개선되었다. Clendenon(1991)은 성적 학대를 경험한 소녀들에게 음악활동을 실행하여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Layman, Hussey, 그리고 Laing(2002)은 학대와 방임, 가정이 분열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하여 자신의 깊은 슬픔과 감정을 음악 안에서 해결하고 자존감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선행 연구에서 입증 하는 것처럼 음악치료와 음악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음악의 연주나 활동, 작품에 참여와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이다(Sears, 1968). Clendenon-Wallen(1991)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노래/rap 쓰기, 리듬연주, 노래 토의/ 즉흥연주, 가사분석, 창작활동, 신체조각(bady sculping), 등 어루만지기(back rubs), 그리고 집단포옹 등이 포함된 음악치료 활동의 결과 성적 학대를 당한 청소년들이 성적 학대를 당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자신감을 뚜렷하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Lindberg(1995)는 성적인 남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래 만들기를 한 결과, 노래 만들기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도구이자, 감정표현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지적장애 청소년은 낮은 인지기능과 어려운 신체 역할, 장애를 판단하는 사회 환경 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데 노래 만들기와 같은 집단음악활동은 작사, 작곡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을 성찰하며, 나아가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게 하고, 음악 창작의 과정을 통해 결과물로 인한 만족감을 주며 또한 음악적 요소로 인한 강화와 그룹 원들의 지지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재인식 하도록 하여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활동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최소림, 2006).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는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비경쟁적인 안전한 환경 안에서 자아 성찰과 자기표현, 자기 이해에 대한 격려, 타인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음악활동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함께 참여한 타인에 의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긍정적 보상을 받는다. 음악활동에서 주어지는 만족감과 얻어지는 긍정적 보상의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자신의 행위에 변화를 갖도록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2) 노래의 치료적 근거 및 기능

(1) 노래와 언어의 유사성

Robarts(2003)는 노래의 본질을 ‘노래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창조물이며, 누구에게나 내재화 되어 있는 것으로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는 노래는 짧은 음악적 활동 가운데 우리가 태아기 때부터 경험하는 것으로 언어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달래거나 안정시키기 위해 자장가를 부르는 것 뿐 만 아니라,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도 노래의 특성을 보이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들의 표현 언어를 관찰해 보면 노래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기들이 처음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에서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고 익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에게 전하려고 하는 감정, 정서 등의 뉘앙스로 멜로디적인 언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성인은 노래의 구성요소들과 비슷한 언어의 억양, 리듬, 빠르기, 크기, 음색 등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아기에게 감정표현과 의사소통을 한다. 이 때 목소리는 그 사람의 본질과 본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Fruchard & Lecourt, 2003).

이와 같은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노래에서 언어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데, 노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멜로디의 구(phrase)는 언어의 문장, 쉼표(rests)는 호흡, 음정(pitches)은 억양을 반영한다. 또한 음악적인 요소인 리듬은 ‘말’의 강세, 길이, 빠르기와 매우 유사하다(최미환, 2002). 이처럼 노래와 언어는 유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 의사소통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를 유일한 매개로 하는 치료적인 접근은 대상자에게 자칫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노래와 같이 언어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대상자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음악 치료적 접근은 대상자의 불안과 과도한 자기방어를 감소시켜 치료의 진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노래의 심리적 기능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삶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며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노래는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노래를 듣고 좋아하더라도 개개인의 의미를 두는 이유는 실로 다양하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노래, 노래와 관계를 맺는 방법, 투사 및 연상되는 내용 등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노래는 치료의 진단과 분석과정에서 매우 매력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노래가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만 관련되어진다고 그 영향을 국한 지어 생각할 수 있으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신체-생리적, 행동적, 정신적, 인지적인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cout, 2003). 이러한 반응은 사회현상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어느 대중가수의 노래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 일탈행동을 하는 것, 노래를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것, 집회에서 군중의 응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경우들이 예이다.

노래가 갖는 치료적 기능은 다양하다. 첫째, 노래는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고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 차원의 수준과 정도로 전달하고 있어, 대상자가 고통 받고 있는 감정의 공명상자(emotional resonating box)가 될 수 있다. 언어적으로 호소 또는 표현하기 어려운 차원의 감정들을 노래가 반영해 주며,

더 나아가 노래는 대상자의 상태와 문제를 수용해 주고 비 위협적으로 외부에 표현해 준다(Felicity Baker·tony Wigram, 2008). 그리고 노래는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매개체가 된다.

둘째, 노래는 삶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삶의 많은 주제들과 접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는 노래에서 등장하는 자신과 비슷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재 경험 해 봄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셋째, 노래는 비 위협적으로 대상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구조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말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지 않아도, 노래선곡,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 노래회상, 연상내용, 노래 만들기 주제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감정과 갈등을 드러내게 되고, 이를 통하여 대상자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래는 개별화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활동으로 융통성 있게 변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감상에서 작곡까지 다양하게 작업형태를 변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노래활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접근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음악치료는 재교육 및 내면 성찰에 입각한 활동으로 주로 노래 만들기와 노래 토론의 기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내면의 성찰을 위해서 가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이러한 대화의 과정은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창조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발견하도록 한다(최병철, 1999).

노래토론은 가사의 메시지로 인해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직접 표현하기를 힘들어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가사에 내제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집단원은 서로 협동하여 재창조된 노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집단 원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임현정,2009).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를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음악치료의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Leef(1982)는 학대 받은 여성들의 자아개념 확립을 위하여 노래 만들기를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실험집단이 음악치료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자아개념 점수의 향상이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또한 박수정(2002)은 정서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노래를 중심으로 한 심리치료가 자아존중감과 우울과 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 밖에 Johnson(1979)은 사회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확립을 위하여 가치명확화 기법과 노래 만들기를 결합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기법의 음악치료가 우울하거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오상희(2004)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성인 화상환자의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 변화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Lindberg(1995)는 성적인 남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래 만들기를 한 결과, 노래 만들기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도구이자, 감정표현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노래 만들기 기법은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표현, 의사소통의 사회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3)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집단음악활동은 동료들과의 교류, 사회적 발달이 요구되어질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집단 내 동료 각 대상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집단의 응집력과 역동성 그 자체가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된다(최병철, 1999). 이는 음악이 사회적이라는 것과(Gaston, 1968) 음악치료가 타인과 관련된 경험(Sear, 1968)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기 이해와 수용을 하게 되고 나아가 개인행동 변화까지 유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됨과 동시에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George,

1988; Lathom, 1980; Mahler, 1969; Sears, 1968).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음악적 자극을 통해 내담자는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집단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최병철, 1999).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활동은 음악치료의 기법들과 음악 활동의 3가지 영역 중 노래영역을 활용한 노래 심리치료 활동 형태의 하나로 노래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노랫말 채우기, 개사하기, 내레이션 을 활동내용으로 하여 노래를 매개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내고 감정 표출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새로운 자기 지각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 치료가 아닌 향상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다.

3. 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의 적용

1) 지적장애인 음악적 특징

언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음악은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고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말을 배우기 이전부터 음악을 느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아에서부터 주변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반복 학습되어 전달되는 음악적 능력은 누구나 가진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이다. 이는 음의 조직이나 리듬에 반응하는 능력이고, 음악적 표현학습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기능이다. 그리고 꾸준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음역, 호흡, 리듬감, 집중력, 독보력, 시창 청음, 빠르기 등의 음악적 기초 능력이 유전적, 환경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저조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의 음악적 기능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Kolstoe(1970)는 지적장애인들이 언어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폐활량이 적다고 하며, 신체 기능의 지체로 청각이 미분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주의력 결핍과 짧은 집중시간 등이 음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적장애 청소년은 선천적, 후천적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특성을 갖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인숙(1982)에 따르면,

‘박자, 리듬, 음정이 정확하지 않고, 화성과 가성의 구별이 없이 고풍지르는 소리를 내기 쉬우며, 여러 사람들과 맞추어 같이 노래 부르기가 어렵고, 악보를 이해하지 못하며, 타악기에 관심이 많고 특히 진동이 큰 타악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음색의 변화를 즐기며 반복되는 리듬과 가사를 좋아하고, 가사와 율동이 있는 곡의 습득이 빠르며, 리듬의 습득도 빠르고 가운데 도-라 까지 음역의 곡에서만 음정이 정확하고 의성어와 의태어가 포함된 가사의 곡을 빨리 습득한다. 또한 의미가 어려운 노래를 싫어하고 음이 너무 낮거나 높은 곡, 또는 빠른 곡은 부르지 못하며 가창에 있어 음정의 습득보다 리듬의 습득이 빠르고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언어를 가사 속에 도입했을 때 가사의 습득도 빠르고 도약 진행보다 순차진행의 곡을 빨리 습득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음악활동을 하지 못한다.’ 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지적장애와 집단음악활동

집단음악활동은 동료들과의 교류, 사회적 발달이 요구되어질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집단 내 동료 각 대상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집단의 응집력과 역동성 그 자체가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된다(최병철, 1999). 이는 음악이 사회적이라는 것과(Gaston, 1968) 음악치료가 타인과 관련된 경험이라는(Sear, 1968)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기 이해와 수용을 하게 되고 나아가 개인행동 변화까지 유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됨과 동시에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George, 1988; Lathom, 1980; Mahler, 1969; Sears, 1968).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음악적 자극을 통해 내담자는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집단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최병철, 1999).

Gaston(1968)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음악의 가치를 집단 활동을 통한 사회적 경험의 제공과 언어발달 및 지체된 신체발달을 도와 줄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과 그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정서적인 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음악활동은 청각, 시각, 촉각적 자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한 인지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음악치료가 지적장애인의 개인적인 발달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감정 표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최병철, 1999).

Atterbury(1985)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에서는 적용내용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사회성과 정서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악 치료 둘째, 운동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셋째, 의사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악치료, 넷째, 취학 전 아동 및 미취학 아동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다섯째, 여가선용을 위한 음악치료이다.

사회성 향상과 정서적 문제 개선과 관련된 음악치료의 연구에서 Nicozia(1965)는 지적장애 아동에게 음악활동은 지적인 성취를 제공하고 사회생활을 위한 상호의존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인 일탈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면서 정상적인 성취를 최대화 할 수 있다고 한다(Alley, 1979). 이유진(2001)은 미국에서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적응행동을 사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음악활동을 근거로 재구성한 집단음악활동을 실시하여 정신지체 청소년의 사회생활능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과로 부적응행동이 감소하고 주의 집중행동이 증가되어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회생활 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Michel & Martin(1970)와 그의 동료들은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노래 부르기 등의 음악과 관련된 놀이나 활동을 시킴으로써 집단에서 상호관계성을 증가시키려는 실험을 하여, 집단 내에서의 상호관계성이 발달하였으며,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음악활동은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효과적이다. 의사소통은 표현적, 수용적 의사소통의 두 가지 능력을 말하며 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음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유덕희(1974)에 의하면 음악은 구체적 개념이나 언어의 표현 없이도 지적장애 아동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보다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여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고, Deutsch와

Parks(1978)은 14세의 중도 지적장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음악을 정적 강화재로 상용했을 때, 적당한 언어가 증가하였으며, 부적당한 언어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학습능력 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Kirk와 Chalfant(1984)는 지적장애 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주의통제 과정의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고 외적 자극의 조직화나 수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학습이 지체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김산호(1986)의 지적장애아동의 학습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주의집중행동과 지속력이 낮다고 밝혀져 있다. 지적장애아동들의 주의집중행동의 부족이 학습상의 실패와 사회생활상의 적응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하여 그 필요성을 피력하였고(Kirk & Gallagher, 1994; Warm & Berch, 1985), 집중행동 능력의 보완은 지적장애아동의 성공적 학습과제 수행과 올바른 적응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인수,1995).

여가선용의 측면에서 보며, 음악 감상, 음악회에 관람, 악기연주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음악치료 집단에서는 음악 감상을 위한 기초 과정과 기술들을 익히고, 선호하는 악기의 단계적 음악 감상을 위한 기초적인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음악치료 집단 밖에서 행해지는 사회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에 동참하는 기회를 넓히며 이것은 결국 자긍심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김영한, 1997).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Ragland & Apprey(1974)는 합창단 프로그램이 결단력을 기르고 자아존중감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고, White & Allen(1966)는 지적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합창단이나 사이코드라마 그룹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최하람(1987)은 지적장애아동의 음악반응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지적장애 아동들이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음악 치료 활동에서 치료의 과정으로서 음악을 사용한 것 이외에도 음악을 강화재로 사용하여 치료적 목표를 달성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고, 지적장애인들에게 음악을 강화재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Jorgenson(1971)은 10세의 중증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상동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화재로 음악을 사용하였다. 상동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며

강화제로서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려준 결과 상동행동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Steele(1968)는 8세의 지적장애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녹음 음악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4분에서 23분까지로 증가되었고, 조건화된 음악이 공격성, 자기-지시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에서 Marilyn(1973)은 큰소리를 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43세 중도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조건적 음악을 사용하여 부적당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강화제로 대상자가 즐겨하는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연주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부적당한 행동이 매우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음악이 지적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음악이 문화권을 넘어선 감정 표현의 도구이며 동시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고, 치료 대상의 지능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신체적인 반응이나 음악 외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자아성찰을 돕고 개인과 그룹간의 조화를 형성하고 학습을 돕고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최병철, 1999).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악활동은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는 활동이며 자기 의사 표현은 물론 내면적인 표현과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으므로 이는 곧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의 적용 기법

노래는 목적과 적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사용된다. 노래가 음악활동에 사용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노래를 사용한 음악치료 기법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법으로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노래토론하기, 노래회상하기, 노래즉흥연주하기, 노래 그림그리기, 등이 있다(정현주, 2005). 본 실험에서는 노래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노래 토론하기가 사용되었는데, 그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래감상하기

노래감상은 가사의 언어적 의미가 포함된 곡조를 감상하는 것으로 가사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음악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신체 시스템과 자율신경시스템의 작용으로 인해 신체를 이완시키는데, 이러한 이완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연결되어 내면의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때문에 감상은 효과적인 긴장 이완의 방법으로서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법 등으로 유익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감상의 기법은 노래 가사의 메시지에 대한 감정이입, 투사, 동일시 등의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느낌과 정서, 갈등과 문제 등을 발견하도록 한다. 즉, 노래 감상은 자신의 생각과 관련된 연상으로 인해 자기표현과 자기 정화, 카타르시스 등을 용이하게 하므로 긍정적인 정서함양, 집중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Clark & Kaiser, 1984).

(2)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는 악기나 다른 도구 없이 인간의 목소리만을 가지고 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노래는 음악적 요소들, 즉 멜로디, 리듬, 화성, 역동성, 음색 등이 함께 작용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풍부한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는 호흡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근육 기관의 움직임은 통해 신체적 이완을 돕고 호흡과 횡경막, 인후, 그 외 호흡과 관련된 근육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신체 움직임은 혈액순화, 소화를 돕는 등 신체의 순환과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군자, 1998). 또한, 노래 부르는 다른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악기가 되어 소리를 발생시키므로 활동에 집중을 촉진한다. 노래의 가사는 자신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에 대한 연상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해 활동 그룹의 역동성을 증가 시키고, 그룹을 하나로 결속시킨다. 특히 집단 음악치료는 타인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 하므로(Sears, 1968), 그룹원간의 역동과 응집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노래 부르기 활동은 대상자가 노래가 담고 있는 상황을 직접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 그것에 대한 대상자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기존의 노래를 사용하거나 대상자가 활동을 이끄는 사람이 창작한 곡을 직접 부르는 것이다.

노래 부르기는 심한 고통, 두려움,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표현의 기회를 주고, 기쁨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래는 삶의 영역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타인과 상호 교류를 도우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Austin, 1998).

(3) 노래 토론하기

노래 토론은 노래를 감상하고, 노래와 가사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치료사 또는 집단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 하는 방법이다. 토론의 과정에서 그룹 원 들은 자신의 내면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왜곡된 과거 경험에 대한 의미와 감정을 올바르게 정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은 과거 경험에 질서를 가져오므로 개인으로 하여금 삶을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또한, 토론은 음악활동을 통해 신뢰감이 바탕이 된 그룹원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주변사람들과의 과거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지지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지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정과 타당성을 제공한다(현수경, 2000). 특히 집단활동은 집단경험을 통해 자기 탐구로 집중하게 하며, 고독감을 감소시키고 성장과 변화를 위해 도전하는 힘을 준다(Rogers, 1968). 결국, 이러한 원동력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유대감은 긍정적인 정서 유발을 촉진시킨다.

(4) 노래 만들기

노래 만들기는 노래의 구조에 특정한 단어, 구절 혹은 멜로디를 자신의 것으로 대치시키는 방법으로(Ficken, 19760), 자신의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재인식과 결과물로 인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노래 만들기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므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을 성찰하며, 나아가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래 만들기는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집단 활동에서도 빈번하게 시행된다. 집단 활동에서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등의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능수준이 높은 집단원은 기능수준이 낮은 집단 원을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하며, 이들의 서로 다른 특성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인 대인관계 행동이 적절한 모델로 제공될 수 있다(Wolfe, 1996). 이러한 것들은 집단원이 서로 협동하여 새롭게 재창조 된 노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집단 원들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집단에서 형성된 신뢰감은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단 활동에서 노래 만들기는 일반 청소년은 물론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적용에 많은 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노래 만들기는 또래 집단의 반응과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또래 집단의 역동은 서로 단결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뢰가 바탕이 된 집단원간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이러한 자신의 표현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지지와 강화를 통한 만족감은 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노래 중심의 음악활동을 계획하였고, 노래 부르기와 노래 만들기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노래 속 가사내용에 대한 자기 반영과 성취감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음악활동은 음악치료의 기법들과 음악 활동의 3가지 영역 중 노래영역을 활용한 노래 심리치료 활동 형태의 하나로 노래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노랫말 채우기, 개사하기, 내레이션 을 활동내용으로 하여 노래를 매개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내고 감정 표출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새로운 자기 지각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 치료가 아닌 향상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다.

4)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구성

<표Ⅲ-1>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구성

회기	노래제목	구성		효과
		노래 가사	음악적 요소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사내용을 이해하여 감상하기 가사가 반복되어 가사를 외울 수 있도록 하기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리고 레가토적인 노래의 흐름과 친근한 가락은 노래 가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좋음. 	<p>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움.</p> <p>레포형성</p>
2	어머니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랩이 주는 강한 비트와 자기고백적인 가사의 선율이 동시대를 사는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공유. 	<p>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p>
3	아름다운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래 가사의 ‘같은 태양 아래’ ‘우린 하나’ ‘우리 함께’ 등의 노랫말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샘, 여림의 변화가 뚜렷하여 자신을 표현할 때와 전체를 다르게 표현하기 친근하고 반복적인 멜로디는 노래를 쉽게 익히는데 도움 	<p>서로에 대한 친밀감</p> <p>마음 나누기-사회적 교류</p>
4	나는 문제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문제 없어의 ‘나’를 ‘우리’라는 단어로 바꾸는 경험을 통해 소속감의 향상을 유도 ‘나는 문제없다’는 단언의 말을 통해 자신감의 회복 및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고 경쾌한 리듬이 주는 역동성을 경험 음의 고저에 따른 마음의 상태 경험. 	<p>자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p>
5	너를 지키는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생각한 노랫말을 넣어 부르는 활동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내면의 상태를 관찰 가사 창작을 통한 성취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락과 리듬에 맞게 자신의 말을 간추리거나 나열하여 만들어보는 연습해 보기 	<p>자신에 대한 장점과 상대방에 대한 장점 떠올리기</p>
6	아빠 힘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래를 부르며 대화하기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경험 	<p>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해</p>
7	친구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근한 감정을 갖도록 도움 그룹간의 일체감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래 속에 빠르게와 느리게의 표현을 통해 조절능력 향상. 	<p>친구와 선생님에 대한 친근감과 고마움</p>
8	거위의 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래가사의 주인공과 가수의 사연을 이해하기 노래가사 바꾸기를 통한 만족감과 사회참여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음보다 고음에서 힘을 더 빼서 불러야 됨. 호흡조절하기를 통해 자기조절의 경험 	<p>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 향상</p>

4. 선행연구 고찰

음악활동이 지적장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에게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임진아(1998)는 ‘장애아 음악치료 교육의 실태연구’에서 정신지체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감소시키며 주의집중력을 향상함에 있어서 음악의 사용은 성공적으로 사용되며, 반복적으로 모방하는 가운데 치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인영(1999)은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부적응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서 서울에 있는 정신지체 특수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김승국(1990)이 표준화 한 K-ABS 검사도구(K-ABS Adaptive Behavior Test)를 사용하여 총 25회 (사전검사, 사후검사)동안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정신지체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음악활동에 참여한 후 감소하였고 또한 주의집중 행동 향상에 효과를 주었음을 입증하였다. 홍화진(2000)은 ‘음악활동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아동의 증상 감소 및 친사회적 행동증가에 미치는 효과’ 음악치료가 감정을 일깨워 주어 목적을 지닌 삶으로 자극받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은희(2000)는 ‘정신지체아를 위한 음악치료 방법 연구’에서 주의력이 한정되며 지적수준, 감정의 수준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정신지체아에게는 음악과 같은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신지체아들의 행동발달과 행동수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신지체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유진(2000)은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행동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음악 표현 활동을 적용하였고, 진선주(2005)는 성인 정신지체인의 감정표현 향상을 위한 음악활용의 연구를 통해 음악활동이 자기 표현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용희(2007)는 집단음악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연구를 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였다.

한용혁(2008)은 ‘가창활동이 정신지체 학생의 발표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달크로즈 음악활동이 지적장애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양정희, 2009)에 대해 연구를 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적용하여 대부분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되는 노래중심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한 층 더 부각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신지체 청소년에게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시키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통합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 중 특수학급에 속한 8명의 학생들 중 중복장애 또는 발달 장애 학생을 제외한 지적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정도의 지적장애 청소년 5명이다.

이들의 정신연령과 사회연령이 약 9~13세의 범위에 분포하는데, 이는 유아기부터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8세정도가 되면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가지고 14세(15세) 전후에 자아존중감 변화가 온 다음 안정된다는 선행연구(Harter, 1986)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비슷한 사회연령대에 있기 때문이며, 통합교육 과정에서 장애학생들과 비 장애학생과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Ⅲ-2>은 KEDI-WISC 검사 결과이다

<표Ⅲ-2> 연구대상 장애학생의 장애진단 결과정보

대상자	성별	나이	SA	SQ	IQ
A	남	18	13	61	69
B	여	18	9	57	62
C	남	18	10	53	61
D	남	19	11	51	54
E	남	18	10	68	67

SA(사회연령, Social Age), SQ(사회지수, Social Quotient), IQ (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

1) 대상 A

A는 남학생이며 키가 178cm이고 이목구비가 눈에 띄는 모습의 학생이다. 신변의 자립이 가능하고 보통의 건강한 체격과 항상 단정하고 반듯한 차림으로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띠며 생활하는 학생이다. 1남 1녀 중 첫째이며 동생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동생과는 여섯 살의 나이차이가 나고 여자동생이라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생활정도는 중위 층 이다. 모두 A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학교에서는 성격이 온순하고 학습 내 규칙과 약속을 잘 알고 이행하며 친구를 잘 도와주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하여 축구를 좋아하며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지 않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즐겨 듣는 음악은 랩이 있는 노래이며,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 하지만 가사를 외우는데 자신이 없고 감정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쉽게 나서기 힘들어 한다.

2) 대상 B

여학생이며 항상 얼굴에 수줍음을 나타낸다.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지적장애의 특성상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내용에 접했을 때는 포기해 버리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사람을 잘 따르고 순응적이며, 선생님을 잘 따르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가정환경은 아버지가 계시지만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어머니와 대학생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다. 즐겨 듣는 음악은 많지 않으나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유'라고 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불러보기 권했으나 부끄러움이 많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자 노래 안 불러 봤다고 했다.

3) 대상 C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남학생이고 특수교육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내용의 따르면 '일상생활에는 어려움 없이 적응이 가능 하지만 학업 수준에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현재학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가정환경 조사서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생활비 지원과 통학 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의

어려운 상황이다. C는 항상 표정이 어두운 편이고 대화를 나눌 때는 눈을 자꾸 아래로 내리곤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끝맺지 못하고 체념이나 포기하는 자세를 자주 취한다. 원반(자신이 배정 받은 통합학급 교실)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특수학급 개별 반 교실에 오면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하며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생활한다.

4) 대상 D

대상 D는 연구대상자 중에 유일하게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다.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시내의 통합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는 학년에만 학급 밖에 없었고 학급 친구들이 모두 이웃이고 부모님들끼리도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 장애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지금 원반(배정된 일반학급)에 가면 애들이 말을 안 걸고 자신만 혼자 있을 때가 많다고 했고 그렇지만 원반 친구들이 밋거나 싫은 건 아니라고 했다.

어머니는 시골집 근처에 있는 가죽공장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자신과 동생이 시내로 학교를 다니게 됨에 따라 자신들이 거주하는 시내에 있는 집과 시골집을 번갈아 가며 왔다 갔다 하시며 시골에 있는 농사일과 시내에 있는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주신다고 했다. 가족들은 전형적인 시골의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의 가정 분위기이며 부모님이 평범한 시골 농부이다.

대상 D는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또래들과의 상호작용과 대인관계가 어려워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로는 학교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며 수시로 보조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부차적인 설명과 지도를 해 주지 않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 음악을 듣는 건 좋아하지만 남들 앞에 나서기에 자신이 없고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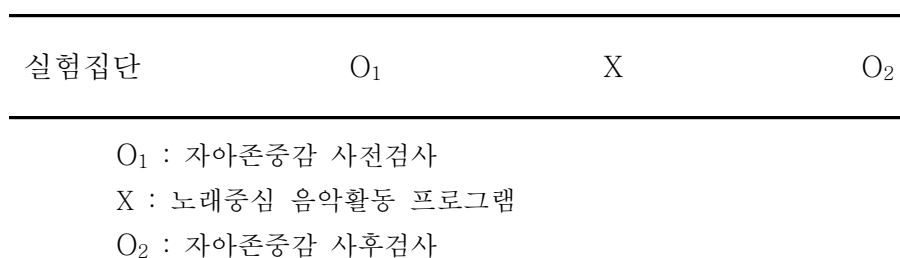
5) 대상 E

대상 학생들 중 가장 정보력이 많으며, 대화를 할 때에도 자신의 의사를 역으로 표현하거나 냉소적인 표현도 곧 잘 한다. 생활지수는 정상에 가까우나 등급 판정 시

자신의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중학교 3학년 기준에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국어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00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 쪽에 불규칙적인 떨림으로 보행에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인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유행하는 노래나 그룹 그리고 드라마 삽입곡 등 많은 곡들의 정보를 갖고 있으나 가사를 모두 외울 수 있는 노래가 없고 혼자 노래발표 하는 것을 거부했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노래 중심 집단음악활동을 실시 전·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이다. 이 실험설계를 도식화하면 [그림Ⅲ-1]과 같다.



[그림 Ⅲ-1] 실험 설계의 구성

3. 연구도구

1) 음악활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한 음악 프로그램은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래와 관련된 여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과 음악치료 문헌을

참고 하였고(김종인, 2002; 장지윤, 2005; 현수경, 2005; 최병철, 2010; 정현주 외 2010), 특히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최소림, 2006)와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활동’(김종인, 2003)을 기본 틀로 하여 지적장애청소년의 집단음악활동에 맞게 특수교사 2인과 중등 음악교사 1인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협의와 검증 과정을 거치고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구안, 실행 하였다.

음악활동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표Ⅲ-3>와 같다.

<표Ⅲ-3> 프로그램 진행 절차

활동순서	소요시간	내용
도입	10분	Hello Song 1. 그룹원들과 인사하기-한 사람씩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2. 스트레칭하기 3. 간단한 레크레이션 활동하기 4. 호흡조절하며 긴장이완하기
활동	30분	1. 노래감상하기-노래를 듣고 제목을 알아맞히기 2. 노래배우기 - 익숙한 노래이나 진행자의 선창에 따라 한 소절씩 따라 부른다. 3. 건반악기 반주에 맞추어 가사를 나레이션 하기 4. 노래 만들기(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사로 바꿔 부르기) 또는 노래 토론하기 5. 가사와 관련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6. 노래감상 또는 노래부르기
정리	10분	1. 활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야기 해 보기 2. 활동에 대한 내용 정리하기 (Good-Bye Song)

매 회기마다 인사하기 노래 Hello Song과 스트레칭, 호흡조절 또는 간단한 게임과 함께 자유로운 형태의 자기표현을 통한 인사하기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지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여 시작했으며, 끝날 때는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쳤다. 준비와 정리단계는 장애의 특성상 5명이 모두 한 번 씩 발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 있게 배정하였다.

본 활동은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또는 노래토론, 노래 부르기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전반부의 노래 감상에서는 전개될 활동에 대한 주제의 암시와 주어진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 제목 맞추기, 노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가사 이야기하기, 노래에 대한 자신의 느낌 말하기, 키보드 또는 기타 반주에 맞추어 가사를 읽기(나레이션),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독창하기(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또는 한명)등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참여를 격려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래와 가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긴장을 이완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래 부르기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의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하며, 발성의 과정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반부에서는 노래 만들기 또는 노래 토론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노래 만들기를 시행할 때에는 장애 청소년들의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빈칸 채우기(fill-in-the-blank)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가사의 의미가 이해된 후에는 가사와 연관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습, 과거의 경험, 공감하는 부분, 느낌, 희망사항, 장애의 꿈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자신의 내면 감정을 확인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언어적, 음악적으로 긍정적 강화를 경험할 수 있는 노래 감상 또는 노래 부르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변화된 생각과 깨달은 점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나누며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래 만들기의 경우 새로 작사한 노래를 나레이션 하여 만족감을 얻고 긍정적인 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노래의 선곡과 관련해서는 음악을 활용하여 상담이나 치료와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할 때, 내담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곡을 선곡하여야 내담자로부터 의미 있는 반응이나 통찰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음악의 적절한 선택은 자아의 이해와 내적 경험을 위한 인식의 문을 여는데 최고로 중요하다(Bunny, 1904). 이러한 이유들로 본 프로그램에 활용한 곡을 선곡 하기 전에 음악치료에 활용된 곡들을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곡들로 우선 고르고, 가사나 멜로디가 단순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들로 선곡하였다.

2)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정인지체학생을 위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송인섭(1989)이 Coopersmith(1982)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 Harter & pike(1984)의 뇌성마비아동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자아존중감 검사’(김윤희, 2001)를 지적장애학생이 이해 할 수 있는 영역의 쉬운 문장으로 윤희봉(2003)이 재구성한 것으로 <부록1>과 같다. 윤희봉(2003)이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4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의 단순2점 척도이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으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 자아존중감, 학교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척도에 따른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Ⅲ-4> 와 같다.

<표Ⅲ-4>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척도	하위문항	문항수	신뢰도
일반적 자아존중감	1*, 2, 3*, 7*, 8*, 9, 13*, 14*, 15, 19*, 20, 21, 25, 26*, 27*, 31, 32*, 33*, 37*, 38*, 39, 43*, 44, 45, 49, 50	26	.81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5, 11*, 17, 23*, 29*, 35*, 41, 47*,	8	.74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6*, 12, 18, 24, 30*, 36*, 42*, 48*	8	.77
사회적 자아존중감	4, 10, 16, 22*, 28, 34*, 40*, 46*	8	.76
전체		50	.74

*역 문항을 표시해 놓은 것임.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제주시에 있는 ○○ 통합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5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까지 연구 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학교생활 상황, 가정환경 등 개인 상담을 통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지기 전 11월 29일과 11월 30일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연구 대상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본 연구에 대한 안내와 설명 및 연구자와 학생, 그리고 보조교사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간단한 레크레이션과 노래를 통한 자기소개 등을 하며 대상 학생의 음악적인 능력을 검사하고 관찰하였다. 실험연구를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2011년 12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0일 까지 매회 50분씩 주2회를 4주(총8회기)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특수학급) 개별 반 활동 시간인 4교시에 특수학급 보조교사의 협조 아래 1학년 개별학급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와 각 단계별 주요내용 및 소요기간을 표로 나타내면 <표Ⅲ-6>과 같다.

<표Ⅲ-6> 연구절차, 주요내용, 소요기간

연구절차	주요내용	소요기간
연구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소개 · ○○통합고등학교 특수학급 개별 반 프로그램 담당 교사 동의 및 참여의사 확인 	2011.11.1 ~2011.11.14 (약 2주)
표집 & 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고등학교의 1,2,3학년 개별학급 중 특수 학급 담당교사 3명과 논의, 지적장애학생이 많은 1학년학급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함. · 중복장애가 있는 3명을 제외 한 지적장애가 있는 본인 및 학부모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전화로 안내. 	2011.11.15 ~2011.11.29 (약 2주)
사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척도 사전검사 (SEI: Coopersmith's Self-Esteem Inventory) 	2011.11.30
프로그램 안내와 사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일정 및 활동 내용 소개. · 노래 가사 바꾸기를 통한 자기소개하기. · 특수교사로부터 대상학생의 특성 및 배경 정보 입수. 	2011.12.01 ~2011.12.02
프로그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회기 음악활동 프로그램 적용 	2011.1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1학년 개별 반 교실 · 시간 : 4교시 개별 반 활동 시간(50분) · 참가인원 : 연구자, 보조교사1명, 활동참가 학생5명 	2011.12.30 (4주간)
사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활동이 끝나고 점심시간 이후에 실시 · 자아존중감 척도 사후검사 (SEI: Coopersmith's Self-Esteem Inventory) 	2011.12.30
결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 비교 - 자아존중감 총 점수 평균비교 - 자아존중감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개인별 비교 - 회기별 관찰기록지 정리 분석 -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연구내용 비교 연구 	2012.01.01 2012.02.29

5. 자료처리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적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양적인 측정 자료로는 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5명에게 음악활동 프로그램 적용 전, 자아존중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 자아존중감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대응표본 t검증에 의하여 유의도를 살펴보고 하위변인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미 수준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고, 다음으로는 양적인 통계만으로는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매 회기별 관찰 기록지와 동영상 녹화자료를 참고하여 개인별 활동의 변화를 하위요인별로 정리하여 자아존중감 변화의 질적 분석을 같이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검사에 대한 결과를 사전·사후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개인별로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역인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양적분석 하였다.

양적인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례별 활동 에서 관찰된 내용을 토대로 하위영역 별로 질적 변화를 분석하여 기술하였고, 집단음악활동에 사용된 노래들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대상들이 발표한 내용들 중에 노래 토론하기와 노래가사 만들기의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가설별로 살펴본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전체)에 미친 효과

가설 1 :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실시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집단별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의 전체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하위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대응표본 t 검증결과는 다음 <표IV-1>과 같다.

<표IV-1> 자아존중감(전체) 사전·사후 t검증 결과

전체 영역	집단	N	M	SD	t	p
자아존중감	사전	5	.50	.06	-11.988***	.000
	사후	5	.76	.02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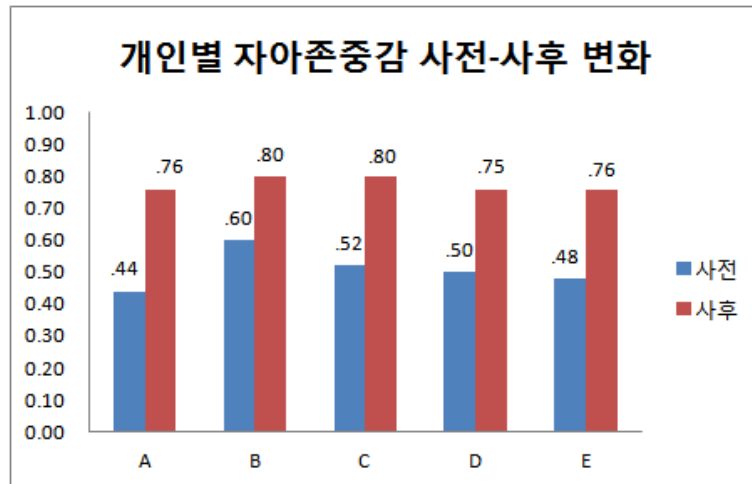
<표IV-1>를 보면, 전체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평균 차는 .26으로 상승되었으며 유의확률이 .000으로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참가한 대상들에게 유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 개인별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전체영역	대상 A	대상 B	대상 C	대상 D	대상 E	합계
사전	0.44	0.60	0.52	0.50	0.48	2.54
사후	0.76	0.80	0.74	0.76	0.76	3.82

자아존중감 사전검사에서 전체적인 .44점~.60점 사이로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 사후 변화에서 대상 A는 .32, 대상B는 .20, 대상C는 .22, 대상D는 .26, 대상E는 .28의 상승을 보이고 대상 A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고 대상 B는 가장 낮은 효과를 보였다. <표IV-2>에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IV-1>와 같다.



<그림IV-1>개인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관찰 내용에 따른 사례에서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활동에서의 적극성이나 집중하는 태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례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A

대상 A는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에서 사전 측정 점수보다 .38로 향상 되어 연구대상 학생들 중에 자아존중감 변화가 가장 높은 점수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악활동 전반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자신을 잘 드러낸 대상이다. 집단 활동과정 1회기에서 첫 활동에서도 진행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의 가사를 자유롭게 가사를 자신의 이야기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등의 관찰 결과 가장 우수한 반면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여 자신이 처 했던 안 좋았던 상황에 대해 기억을 잘 떠올리고 또한 집단음악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의지도 강하였다.

자아존중감 사전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던 반면 사후 자아존중감 검사에서 많은 향상을 보인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았었다는 것과 본 프로그램인 노래 중심 집단음악활동이 대상 A에게 수준에서 무리가 없었음을 나타내 주는 효과적인 반응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대상 B

대상 B는 자존중감 사전 검사에서도 .60의 보통수준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사후의 검사에서 나타난 다른 학생들의 전반적인 상승 폭과 비교했을 때는 저조한 변화이다.

대상 B는 가정환경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장애 인식 수준이 높아서 치료교육과 통합교육의 경험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자기인식이 높은 편에 있어 보였다. 그러나 자신감 없는 표정과 자세가 자주 보였고, 특히 목소리를 작게 소리 내어 얘기하였다.

3) 대상 C

대상 C는 집단음악활동 사전 측정결과 .52와 사후 측정결과 .74로 .22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보였다. 대상 C는 사전 자아존중감 측정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서 가정적인 요인 외에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사후 자아존중감 측정결과에서는 역시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외에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향상을 가져와 노래 중심 집단음악활동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지냈다. 항상 소외되어 보였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거나 다가가고자 하면 쉽게 자신을 상대방에게 의지하거나 순응 해 버린다.

4) 대상 D

대상 D의 집단음악활동 사전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를 보면 .50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었지만 집단음악활동 사후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에서는 .76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격이 순하고 따뜻한 부모님의 가정환경에서 자라서 온순하고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으나 집에서 장남이어서 그런지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자주 취했다. 음악을 듣는 일을 무척 좋아하였고, 항상 입으로 무슨 노래인가를 흥얼거리면 다니는 학생이었다. 주로 경쾌한 노래와 율동이 있는 노래를 즐겨

들으며 흥겨운 것을 좋아했으나 노래 가사를 완벽하게 외울 수 없고 음감 역시 불확실한 편이었다. 또한 노래가사에 대한 이해나 자기 반영보다 리듬이나 노래의 선율에서 느끼는 감흥이 먼저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대상 D의 이러한 노래에 대한 단편적인 선호 활동이 노래가사 토론하기, 또는 노래가사 창작하기 등의 인지적인 이해 활동과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반영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그 효과성을 발휘하였다고 분석 된다.

5) 대상 E

대상 E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음악활동 사전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48이었고 사후 측정 결과에서는 .76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대상 E는 활동 과정에서 아는 노래가 가장 많은 학생이었고 노래 토론하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별거로 어머니와 지내고 있다. 자신의 원반 학급에서는 발표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자신 역시 위축된 시간을 보내다가 개별반의 친구들과 음악활동을 통해 노래만들기, 노래토론하기 등의 과정에서 집단원들의 피드백과 자신의 일상과 주변에 대한 되돌아보기 과정이 대상 E에게 자아존중감 향상의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2. 하위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미친 효과

가설 2 :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은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실시 전 · 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의 사전·사후 비교 t검증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균 변화와 관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가설 2-1 :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을 실시한 후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t검증 결과는 <표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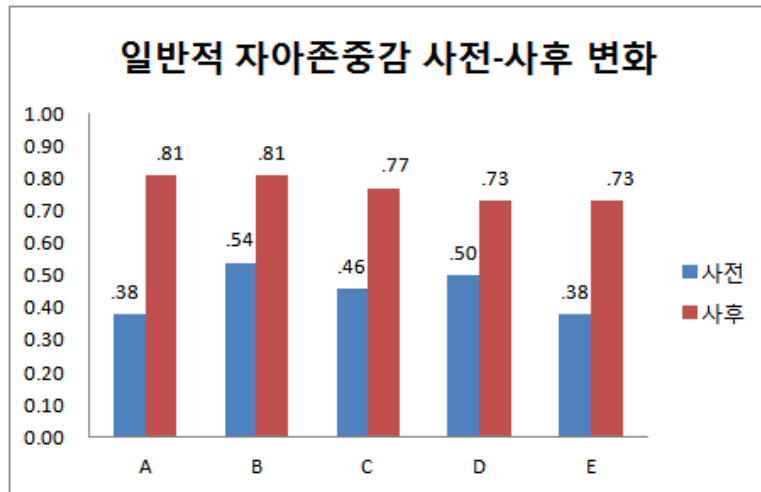
<표IV-3>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

하위 영역	집단	N	M	SD	t	p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전	5	.45	.07	-9.532***	.001
	사후	5	.76	.03		

***p<.001

<표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래 중심 음악활동 후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t검증 결과 ***p<.001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음악활동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측정 결과는 [그림IV-2]와 같다.



[그림IV-2]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그림IV-2]에서와 같이 개인별 평균 변화는 모두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대상A는 .43, 대상B는 .27, 대상C는 .31 대상D는 .23 대상E는 .25의 상승을 보였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변화와 관련한 활동에서의 개인별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A

대상 A는 항상 활달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 하는 학생이지만 가끔씩 화가 나있는 표정을 보였다. 음악을 좋아하고 감정이 풍부하여 항상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속한 학급(원반)에서 누군가 자신을 놀리면 대응하지 못하고 화난 표정으로 개별 반을 찾곤 했다.

대상 A는 1회기에서 노래가사 바꾸기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5회기에서는 다같이 노래할 때 목소리를 제일 크게 소리 내었다. 하위영역의 자아존중감 중에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향상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노래 가사 만들기 과정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회기(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노래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며 후렴구를 아주 잘 불렀지만 가사를 암기하여 부르는 것은 어려워하였다.

노랫말에 대한 생각나누기과정에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나누어 준 악보를 보며 가사를 외우는 일에 집중하였다. 노래만들기 활동 시에 자신이 만든 노래가사를 낭독하였다.

5회기: (너를 지키는 힘) : 노래감상하기와 함께 부르기가 끝나고 독창할 사람을 질문했더니 손을 들어 반주에 맞추어 불렀다. 음정과 리듬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우린 너를 사랑해’라는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주어 불렀다.

(2) 대상 B

1회기(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수줍음을 많이 보이고 진행자에게 눈 웃음과 같은 비 언어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상태나 관심을 표현하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수화로 배우는 시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불러 주고 싶다고 외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회기(너를 지키는 힘) : 음악활동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래가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자신의 장점은 웃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3) 대상 C

2회기(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사랑받기 위해 태었다는 가사에 대해 자신은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가사의 뜻을 설명해 주기 바랐다. 글을 읽는 속도와 노래의 리듬이 부정확하고 가사를 박자에 맞게 부르지 못했지만 후렴구 가사가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큰 소리로 불렀다.

5회기(너를 지키는 힘) : 노랫말 채우기 과정에서 필요한 서로에 대한 장점과 자신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친구에게 나쁜 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4) 대상 D

2회기(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한글을 잘 몰라서 노래가사를 잘 따라 읽지는 못했지만 허밍이나 불확실한 소리로 음정을 나타내고자 열심히 가창하였다. 가사를 나레이션하고 싶어 하였으나 스스로 다 읽지 못하여 일부분은 전체의 소리로 나레이션을 마무리하였다.

5회기(너를 지키는 힘) : 나레이션 발표를 했다. 글을 잘 읽지 못하여 외워서 낭독하였으며 완벽한 암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친구의 이름을 읽을 때는 의미 있는 목소리로 읽 대상을 바라보곤 했다. 자신이 발표했던 동영상을 보며 매우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5) 대상 E

2회기(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자신은 누군가 자신을 크게 불러줄 때라고 말했다. 자신이 이름이 없다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말했다. 활동한 곡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가사의 내용도 대부분 암기하여 불렀다.

5회기(너를 지키는 힘) : 자신의 장점은 용감함이라고 말했다. 용감함을 가장 많이 보일 때는 밤길을 갈 때 무서움이 없다고 하였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으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대항하여 싸울 수도 있다고 하였다.

2)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가설 2-2 :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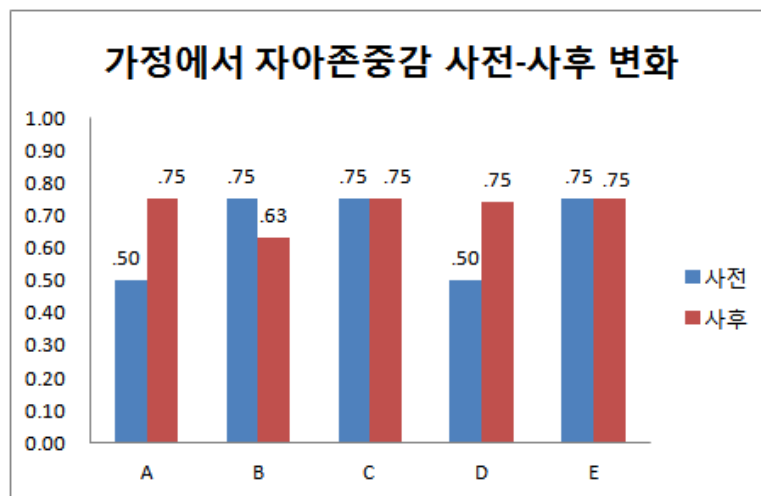
t검증 결과는 <표IV-4>와 같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표IV-4>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

하위영역	집단	N	M	SD	t	p
가정에서 자아존중감	사전	5	.65	.14	-1.000	.374
	사후	5	.73	.06		

p<.05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래 중심 집단음악활동을 적용한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서 하위영역인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t검증 결과는 유의확률 .374 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개인별로 변화의 차이를 보면, [그림IV-3] 과 같다.



[그림IV-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평균점수를 측정한 결과는 사전 보다 사후 평균 값이 8점 높은 적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대상A는 .25, 대상 B는 -.12, 대상 C는 .00, 대상 D는 .25, 대상 E는 .00으로 대상 A와 대상 D는 상승된 결과는 나타내었으나, 대상 B, 대상 C, 대상 E는 는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는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대상에 따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두 가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가정환경을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지 못한 대상 B, 대상 C, 대상 E의 가정은 부모님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부모가정이었다. B와 E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지내고 대상 C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지내는 학생이었다.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은 정상가정의 청소년 보다 가정적 자아가 낮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경우,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에 대하여 평안한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정에 대한 불만족, 불화, 갈등, 적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호연(1995)).

B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아버지의 경제적 실패와 장애자녀에 대한 부부의 갈등이 아버지와 별거의 원인이 되어 B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B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가직하고 생활한다.

반면, 아버지와 사별한 C와 E는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질문에서 항상 정해진 답을 체크 한 경향으로 미루어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한다는 것과 집에서 항상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과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인의 자아개념의 특성인 ‘나는 결코 잘못된 점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 ‘ 나는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와 같은 자신에 대한 허황된 개념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Guthrie, Bulter & Gorrllow, 1962) 자아존중감 검사 시 솔직하지 못한 답을 달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노래중심 집단활동 프로그램이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6회기에서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의 원곡은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다. 원곡의 의미가 강했으므로 노래 토론하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노래 만들기에서는 같은 맥락에서의 가사 짓기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을 표준으로 만들어진 노래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상대적인 열등감과 자아존중감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한 활동 프로그램 선곡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실시 후 지적장애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위의 두 가지 원인을 이유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회기에 따른 개인별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A

2회기(어머니께) : 노래의 전반부에 있는 랩 부분을 아주 좋아하였다. 유행하는 노래들 중 랩이 있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랩이 있는 부분은 자신이 담당하여 불러보겠다고 하였으나 속도감이 느려서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였다.

6회기(아빠 힘내세요): 아빠의 생일날 자신이 불러주었다고 자랑하였다. 노래 토론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치료실 앞에서 기다려 주었다는 것과 자신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올레 길을 걸었던 일 들을 떠올려 말하였다.

(2) 대상 B

2회기(어머니께) : 랩을 한 번도 불러 본 적이 없다며 약간의 거부를 하였다. 노래의 리듬은 비트가 강하고 전체적으로 단조의 곡이었던 점과 슬펐던 기억을 떠올리는 내용이어서 그런지 노래감상 후 느낌 말하기 시간에 노래가 슬프다고 말하며 엄마가 불쌍하다고 표현하였다. 엄마가 불쌍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노래 가사에 나오는 내용을 빌어, 엄마는 고생하는데 맛있는 것도 못 먹는다고 말하였다.

6회기(아빠 힘내세요):활동에 무척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노래만들기에서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고 활동을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3) 대상 C

2회기(어머니께) : 지난 회기 때 보다 활동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노래를 함께 합창하는 부분에서 는 ‘워-우-에-에’하는 후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불렀다. 나레이션하는 부분에서 자신 있게 일어나서 발표했으나 글을 읽으며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6회기(아빠 힘내세요) : 노래 가사를 만들 때 옆 사람의 내용을 자꾸 들여다 보았다.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소극적이었으나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4) 대상 D

2회기(어머니께) :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 하는 시간에 어머니는 매일 일을 해서 몸이 힘들다는 표현을 했다. 자신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머니가 속상해 했었다고 기억 때 울리기를 하고 그래서 자신은 어머니 대신 집 청소를 잘 한다고 발표하였다.

6회기(아빠 힘내세요) :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화를 자주 내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자신에게 착하다고 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다며 아버지와의 친근함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5) 대상 E

2회기(어머니께) : 노래에 대한 관심과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았다. 한 번도 자신 있게 좋아하는 노래를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불러보겠다고 하였다. 노래 부르기가 끝난 뒤 가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자 어머니가 자장면을 안 먹은 것은 아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한 것이라며 노래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6회기(아빠 힘내세요) : 노래만들기 시간에 아빠라는 부분의 내용을 모두 엄마 라는 가사로 바꿔서 적었다. 대체적으로 노래하는 목소리도 컸고 집단활동에 집중하였으나 적극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3)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가설 2-3 :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실시 후 지적장애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효과를 미쳐 가설에 대한 검증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는 <표IV-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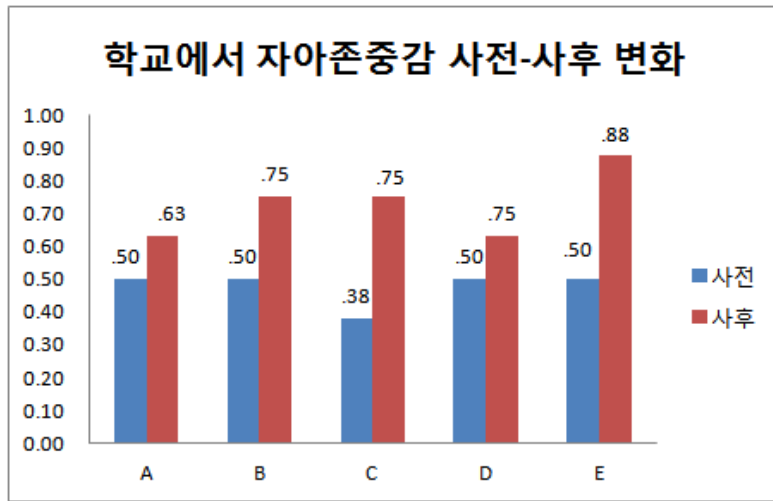
<표IV-5>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

하위 영역	집단	N	M	SD	t	p
학교에서	사전	5	.48	.06	-4.472*	.011
자아존중감	사후	5	.73	.10		

*p<.05

사전·사후 t 검증 결과 유의확률은 .011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자아존중감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측정 결과는 [그림IV-4]와 같다.



[그림IV-4]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측정 결과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결과 전체 평균이 .25 상승 하였다.대상 A는 사전보다 사후의 자아존중감이 .13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상 B는 .25, 대상 C는 .37, 대상 D는 .13, 대상 E는 .38의 상승을 보여 노래중심 집단음악 활동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건은 즉각적인 반영이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관련 회기에 따른 개인별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A

3회기(아름다운세상) :원반(자신이 원래 속해있는 일반학급)에서 기분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자신을 특별히 괴롭히는 친구는 없으나 어울려 대화를 나누거나 조별 활동에서 자신이 속한 조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지 않는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언제든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어울릴 수 있다고 하였다.

7회기(친구에게) :지난 회기 보다 목소리와 노래에 어울리는 표정이었다. 자신의 장점과 친구의 장점을 말하기 시간에 집단에 참여한 학생 5명의 장점을 모두 하나씩 얘기하고 자신의 장점은 ‘웃는 것’임을 생각해 내었다.

(2) 대상 B

3회기(아름다운세상) : 노래의 리듬이 경쾌하고 노랫말이 청소년의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여서 그런지 노래하기 활동에서 작은 목소리로 ‘작은 가슴 마다 고운 사랑모아 우리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부분을 반복하여 불렀다.

7회기(친구에게) : 활동시간에 표정이 밝아졌다. 활동 초기에는 집단에서 동떨어진 모습이었으나 이번 회기에서의 모습은 집단의 분위기에 잘 동참 하였다. 자신의 장점은 ‘양보’하는 것이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3) 대상 C

3회기(아름다운세상) : 나레이션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글을 읽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뜻을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전달이 잘 안되었다. 학교에서는 주로 개별 반 친구들 하고만 어울리고 일반학급 학생과 같이 있을 때는 매우 심심하다고 표현하였다.

7회기 (친구에게) : 원반에서 친한 친구를 떠올려 장점을 말해보기 활동에서 원반 담임선생님은 자신에게 잘 대해 주며 자신과 친하다고 하였으며, 원반 친구 이름은 잘 모른다고 하였다.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목소리와 표정이 이전 보다 안정됨을 알 수 있었다.

(4) 대상 D

3회기(아름다운세상) : 노래를 전체적으로 다 부르지는 못했다. 후렴구의 반주와 경쾌한 리듬에서 몸을 흔들기도 하며 불렀으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작은 목소리로 부르게 되고 흥겨운 느낌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했다.

7회기(친구에게) : 친구들에 대한 장점을 말하기에서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다. 자신의 장점을 친구들이 얘기해 주자 무척 부끄러워했으나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5) 대상 E

3회기(아름다운세상) :함께 합창하기에서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가사를 잘 표현했다. 노래의 전주 부분에서 반주를 연주하는 흥내를 내기도 하여 모두에게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7회기(친구에게) : 중학교 때 일반학급 학생으로부터 놀림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집단원 모두가 대상 E와 같은 경험을 한 번 씩 얘기 하였다. 자신은 개별 반 친구들이 가장 친구라고 하였다. 그 느낌을 노래처럼 따뜻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4)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가설 2-4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실시 후 지적장애 청년의 사회적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은 유의미 한 결과 나타나 효과 있음이 검증 되었다.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는 유의확률 .34를 나타내어 유의미함이 확인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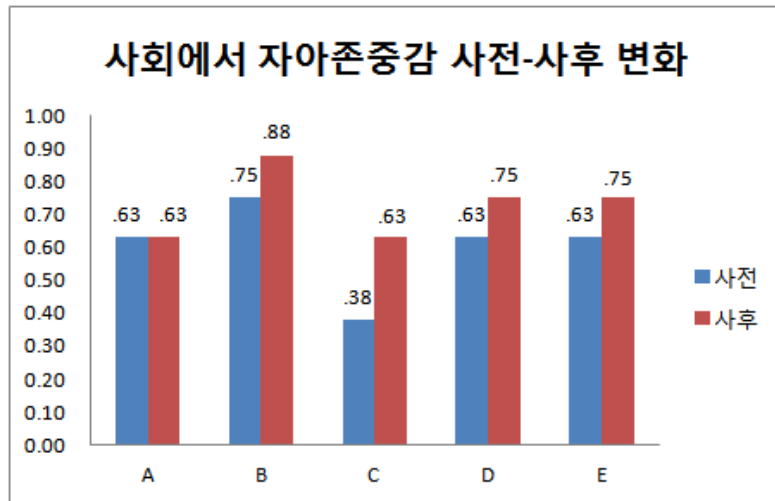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는<표IV-6>와 같다.

<표IV-6>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t검증 결과

하위영역	집단	N	M	SD	t	p
사회에서 자아존중감	사전	5	.60	.14	-3.162*	.034
	사후	5	.73	.10		

*p<.05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측정 결과는 [그림IV-5]와 같다.



[그림IV-5]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측정 결과

대상 A는 사전과 사후의 자아존중감에 변화가 없었고, B는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가 .13점 향상되었고, C는 사전점수가 현저히 낮은 .38에서 사후에 .63으로 .25의 상승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D와 E는 사전 사후 점수가 .63에서 .75로서 .12의 동일한 상승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상별로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A

4회기(나는 문제없어) : 활동의 첫 순서인 노래 듣기 시간에 일어나 유행하는 몸동작을 해 보여서 전체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자신은 중학교 때 처음 버스 타는 연습을 했는데, 버스 번호를 잘 못 봐서 길을 잃을 뻔 했었지만 그 후에 자주 버스 타는 연습을 해서 이젠 문제 없다고 이야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차아서 이야기 할 수 있었다.

8회기(거위의 꿈)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표현하였다. 거위는 날지 못하지만 나는 꿈을 꾸니까 언젠가는 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꿈은 버스 운전사라고 발표하였다.

(2) 대상 B

4회기(나는 문제없어) : 노래 만들기 활동에서 자신은 마트에 혼자가서 쇼핑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으며, 나는 문제없어 라는 내용에 '마트에서 혼자 쇼핑하는 일 나는 문제없어'라고 적었다.

8회기(거위의 꿈) : 대학생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발표하였다. 대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 마디씩 이야기 할 때 자신은 대학생이 돼서 머리 파마와 화장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집단 원 모두 그러면 얼굴을 몰라보지 않겠냐며, 지금이 더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다. 집단 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가 느껴지는 듯 했다. 노래의 후렴구 '그래요, 나는 꿈이 있어요' 를 힘을 주어 가창하였다.

(3) 대상 C

4회기(나는 문제없어) : 활동 전 선생님으로부터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아서 지적 받은 일로 어두운 표정이었으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문제없어'라는 후렴구를 더욱 강조하여 크게 부른 이유를 물어보자 '신이 나서요'라고 대답했다. 잠깐의 우울한 마음이 경쾌하고 희망적인 리듬과 가사로 인해 해소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8회기(거위의 꿈) : 거위는 무슨 꿈을 꾸는지, 왜 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털이 뽑히는게 싫어서 날아가고 싶은 것일 거라는 현실적이고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평소에 마음이 순하고 착한 C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피해의식이 발견되는 내용이었다. 장래 희망은 아직도 이렇다하게 자신있게 정하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활동 시간 내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고하는 모습이었다.

(4) 대상 D

4회기(나는 문제없어) :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도 하지만 노래와 춤에 쉽게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경쾌한 멜로디가 가사의 긍정적인 내용에 힘을 더 해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격려 자기암시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몸을 흔들며 스스로를 향해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8회기(거위의 꿈) : 자신의 꿈은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5) 대상 E

4회기(나는 문제없어) : 노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다만,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얼굴의 신경이 경직되어 있어 정확한 발음이 안 된다. 하지만 연구대상 중에 가장 많은 노래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음정이 정확한 편이다. 노래를 부르는 일이 본인에게 위안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 노래 가사 만들기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표현이 있었지만 생각의 방향을 역으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였다.

8회기(거위의 꿈) :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자신이 없다. 신체적인 결함과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든든한 뒷심을 못 갖는다. 장애인은 “취업이 어려워요”라며 현실을 직시하는 말도 했다. 그러나 졸업한 선배들 중에 취업을 한 사례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나가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자, 수용하여 듣는 자세를 보였다. 가사를 나레이션 할 때 감정을 담아 읽는 모습을 보였다.

V. 논의, 결론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있는 ○○ 통합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1학년 학생들 중에 지적장애 학생 5명을 대상으로 매 회기 50분 씩 총 8회기에 걸쳐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사전·사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송인섭(1989)이 Coopersmith(1982)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를 뇌성마비아동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자아존중감 검사’(김윤희, 2001)를 지적장애학생이 이해 할 수 있는 영역의 쉬운 문장으로 윤희봉(2003)이 재구성한 것으로 <부록 1>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은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적장애 청소년의 집단음악활동에 맞게 특수교사 2인과 중등음악교사1인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협의와 검증 과정을 거치고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구안하고 실행 하였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는 본 연구자가 매주 2회 50분씩 4주간에 걸쳐 8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분석은 Windows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검사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p < .01$, $p < .05$ 수준에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양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회기마다의 각 대상의 변화를 관찰기록과 동영상 참고하여 질적으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본 결과 유의도 .000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실험집단의 집단음악 활동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의 문제를 활동의 중심에서 나누어보고자 하는 자기개방의 모습이 보였고, 해결되지 않았던 심리적 불편함을 기억해내어 집단에서 공유하고 서로 지지해 주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최유선(2002), 최소림(2006), 현용혁(2008)의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음악활동에서 노래 부르고, 가사를 만들고,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고 가사를 나레이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적장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중심되어 자신의 문제를 노래로 부르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경험은 흔하지 않다. 항상 뒷전에 있어야 하고 무조건 순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주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라는 연구 대상의 특징으로 인해 동일한 비교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설계 과정에서 단일집단 사전·사후만을 검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단일집단 실험 설계에서의 내적타당도의 문제를 지닐 수 있다. 즉, 실험대상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친 주변 요인들이 있다는 것에 반증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내적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동질성을 지닌 연구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활동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서 사전 사후 변화를 t검증 한 결과, 일반적 자아존중감 유의도 .001, 학교에서 자아존중감 유의도 .011,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034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유의도 .374의 결과를 보여 유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존중감이라고 볼 때 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에 대한 많은 지지와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효과가 더욱 있었으리라 본다. 특히, 일반적 자아존중감을 체크하는 검사지 1번 문항의 ‘많은 시간을 아무생각 없이 멍하니 보낸다.’ 라는 질문에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을 실시 한 후의 검사지를 살펴보면, 대 부분의 대상들이 사전 검사에서의 답과 다르게 ‘아니오’라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서 통합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생활은 상대적인 열등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외되고 위축된 마음을 노래중심 집단활동 속에서 해소하고 발산할 수 있게 한 것은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의 효과를 가져 올 수있었던 내용을 살펴 보면 자신의 미래나 꿈과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활동내용으로 삼으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능한 일들을 생각 하게 도와주어 사회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실시 후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표현활동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이효숙(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원인을 살펴 보면, 집단활동에 참여한 5명의 학생들 중, 사후 측정결과에서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 보다 낮거나 사전·사후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 대상들의 공통점이 한 부모 가정의 자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한 부모가정의 자녀들은 가정적 자아가 낮다(김호연, 1995)는 한 부모가정의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 B와 대상 E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가정에 대한 평안한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장애 탓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는 적대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 된다. 그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노래중심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활동과 관련된 2회기 ‘어머니께’라는 노래와 6회기의 ‘아빠 힘내세요’의 활동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고마움을 새로운 가사로 표현하는 노래 가사 만들기 활동이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표준으로 구성된 점이다. 이는 한 부모가정의 자녀,

특히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지 못했을 때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불확실한 답을 표시하여 검사의 정확성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된 점을 살펴보면,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에서 노래 안에 내포된 가사의 메시지로 인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장애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내면의 분석과 탐색을 통해 긍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노래 안에 내재된 음악적 요소는 음악적 자극으로 인해 감정의 표현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뢰감이 바탕이 된 그룹의 지지를 통해 만족감을 주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추수 연구에서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기본이 되는 개인의 가정환경과 부모와의 관계가 검사과정은 물론 활동 과정과 분석과정 전반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얼마나 노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은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실시 전·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노래 활동이 가지는 효과성으로 노래를 감상하고 가사를 토론하고, 노래가사를 바꾸어 낭독해 보고, 노래 부르고 하는 노래활동의 치료적 측면과 집단 활동에서 오는 역동성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집단 원들과 나누며 집단 활동 속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지지하는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또한 자신이 가사를 바꾸어 모두에게 발표하는 과정은 실패감이 많은 장애청소년들에게 성공의 기회와 성취감, 자긍심을 경험하게 해 주어 지적장애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중 일반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실시 후 모두 향상되어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으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노래중심 집단활동 실시 후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대상들의 공통점이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었음이 확인 되었으며, 이것은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근본적인 바탕은 가정환경이라는 것과 노래중심 집단활동에서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은 사회적응과 자기조절이 어려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학교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활동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제언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주에 걸쳐 8회기 활동이었으나 좀 더 회기 수를 늘려서 활동했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둘째,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중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는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효과를 보지 못한 대상들은 한 부모가정의 자녀였음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더욱 효과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 개인 환경 사전조사 및 프로그램 구안과 적용과정 전반에 걸쳐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전반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성별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어 발표하는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관찰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장애정도에 따른 변화가 어떤지 검증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성별과, 장애의 정도에 따른 적용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넷째, 본 연구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지만 내적타당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집단 실험설계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더욱 뚜렷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적용 후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적용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추수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문적인 음악치료 적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나, 통합학교의 교육현장 음악 시간이나 장애시설에서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과 같은 향상과 개선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에 필요한 장소 도구 등을 구비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200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군자(2001).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서울: 김군자 음악치료 연구소
- 김도애(2005). **집단음악활동이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말희(2001). **치료적 그룹 음악활동이 시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2000). **자아개념 증진 활동 중재가 정인지체 아동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인(2010).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서울: 지식산업사.
- 박연희(2007). **집단음악활동이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 및 자기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선(1986). **정인지체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송윤희(2001). **음악정보의 처리과정과 창의적 사고의 이해**. **음악교육 연구**, Vol.21. No.1,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 학지사
- 신은용(2009). **집단음악활동이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연희(2000). **노래 부르기 집단음악활동이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선(2003). **즉흥연주 음악치료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연(2001). **집단음악활동이 취학전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1999). **이상심리학**. 서울 : 법문사
- 이경숙(1999). **집단음악활동이 정신분열 환자의 감정표현력과 정신병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진(2000). **음악활동이 정인지체 청소년의 사회생활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 정광조(2006). 인지양식과 과제 난이도가 정도정인지체 학생의 시각변별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 13. No1.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진정희(2000).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아동의 또래관계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호정(2001). **집단음악활동이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지은미(2002). **음악활동이 비행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선주(2004). **성인정인지체인의 감정표현 향상을 위한 음악활동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영기, 권주석(2006). 음악표현활동이 정인지체학생의 부적응행동 변환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Vol.10. No2.
- 최병철(1999).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소림(2006).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활동이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선(2002). **정인지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방법 : 피아노 교습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용희(2007). **집단음악치료가 정인지체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수경(2000). **Songwriting을 사용한 음악치료가 알코올 환자의 자아존중감 및 통제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정(2004). **정인지체 중 · 고등학생의 학급형태, 성별과 정서문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iley, L. M.(1984). The Use of Songs in Music Therapy with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Music Therapy, 4*, 5-17
- Bonny, H. (1994). Music and consciousness research in music therapy. *A tradition of excellence*, pp. 123-133
- Boxill, E. H. (1984). *Music therapy for the develop mentally disabled*. Rockvill, M. D: An A Spen Publication.
- Brenner, A. (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Washington D . C: Health and Company
- Bruscia, K. E(1989). *Defning music therapy*. Pfoenitvill : Spring House Book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reeman.
- Edgerton, C. D.(1990). Creative group song writing. *Music Therapy Perspectives, 8*, 15-19.
- Elkind,D.(1983). *The hurried child*, New York : Management& Music Publish.
- Gaston, E. T. (1968). *Man and music In E. T. Gaston(Ed)*. Music in therapy. New York : the Macmillan Com Pany.
- Sear, W. (1968). *Processes in music Terapy. in music terapyed*. by Gaston. New York : Macmillan Com.
- Ficken, T. (1976). The use of song writing in a psychiatric setting. *Journal of Music Therapy,13(4)*.
- Gaston, E. T.(1968). *Man and music In E. T. Gaston(Ed)*. *Music in therapy*.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George, R. L. & Dustin, D.(1988). *Group counselling: Theory and Practice*.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Henderson, S. M.(1983). Effects of a music therapy program upon awareness of mood in music, group cohesion, and self-esteem among hospitalized adolescent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20(1), 14-20.

- Hinshaw, S. P.(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relationship sand under lying mechanisms. *Psychol bull, /(1), 27-155.*
- Larson, K. & Ayllon, T. (1990). The effect of contingent music and differential rein for cement on infantile colic. *Behavior Re sear and Therapy,28(2), 119-125.*
- Lathom, W(1980). *Role of music therapy in the education of handicapped children and youth.* Lawrence, K. S: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Inc.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Plenum Press.
- Louise, Montello. & Edger, E. Coons,(1978). Effects of Active Versus Passive Group Music Therapy on Pre adolescents with Emotional, Learning and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 Maslow, A. H.(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Harcourt Brace. Injured. *Music Therapy Perspective14, 30-37.*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ars, W.(1968). *Processes in music Therapy.* in music in the rapyed. by Gaston. New York : Mac Mill an Com.
- Thaut, M. H.(1989). Music Therapy, Modification, and Therapeutic Change. *Music Therapy Perspectives, 7, 55-62.*

<Abstract>

The Effect on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lf-Esteem by Focusing upon Singing in Group Musical Activities.

Kim, Bok-Hee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²⁾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y focusing on singing in group musical activities. Th following are the subjects of inquiry on this subject.

1. Do the musical activities, which are focused on singing, show a significant change upon mentally handicapped adolescents' self-esteem?
2. Does the focus on singing in group musical activities show a meaningful modification in subcomponents of adolescents' self-esteem?

For this study, 5 students, who are selected from first year students in ○○ integrated high school in ○○ City by not having multiple disabilities. They were given a preliminary examination about their self-esteem. group musical activities focused on singing was applied to the volunteers twice a week from 5th of December, 2011, to 30th of December, 2012.

* This paper is the master's thesis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n Aug. 2012.

After that, they were examined again and the results were measured comparing the change to the previous one.

The group musical activities focused on singing was reframed according to 'Group Musical Therapy Program' by Park, Yeon-He (2007), Uh, You-Ran (2008), and Shin, Eun-Yong (2009), particularly for developing self-esteem.

The measuring instrument of this study is the pre-to-post result of Coopersmith's self-esteem criterion. The result scrutinized the difference in average grade and the change of 4 subordinate concepts, which are General, Home, School, and Social self-esteem. To determine the quantitative change of self-esteem, significance level $P < .01$, $P < .05$ matching to sample 't verification' by using SPSS WIN 18.0 Program. Also, the individual changing process was divided into subordinate categories, by using the video and observation notes to recognize the changes involved in self-esteem from group musical activities. It was summarized and analyzed afterwar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process.

1. Focusing on singing group music activity center to apply before and after a result of self-esteem, pre-test scores (.51) than the post-test scores (0.74) appeared significantly higher secondary ($p < .000$), respectively.

2. Focusing on singing group music activity center after applying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area of the four sub-general, self-esteem ($p < .001$), school self-esteem ($p < .011$), self-esteem and social change ($p < .034$) indicates a significant result was seen in changes in self-esteem at home ($p < .374$) was not significant.

Therefore,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if there is enough attention on children with a single parent, focusing on singing in group musical activities will have more effect on improving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addition, focusing on singing in group musical activities is highly efficient in developing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not only at school but also at general medical facilities and during other activities.

<부록 1>

자아존중감 검사지

아래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과 같으면 '예'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를 표시하세요.

이름 :

번호	문항	예	아니오
1	많은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낸다.		
2	나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다		
3	때때로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4	무엇이든지 쉽게 좋아한다.		
5	부모와 내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6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하기가 부끄럽다		
7	지금보다 어렸으면 좋겠다.		
8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		
9	쉽게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		
10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대단히 즐겁다		
11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12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13	언제나 누군가가 나보고 무슨 일인가를 하라고 한다.		
14	새로운 것에 친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5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16	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7	부모님은 나를 이해한다.		
18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19	나는 쉽게 굴복 한다		
20	항상 내 일에 대해 조심 한다		
21	나는 행복하다		

22	나보다 어린 아이와 어울리는 편이다		
2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서 상당히 기대 한다.		
24	수업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을 좋아 한다		
25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26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다		
27	내 일들은 잘 풀리지 않는다.		
28	내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		
29	어느 누구도 집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		
30	나는 내가 하려고 한만큼 학교에 잘하지 못한다.		
31	나는 결심을 하면 꼭 지키려고 한다.		
32	나는 내가 남자(여자)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3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위라고 생각한다.		
34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5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많다		
36	학교에서 자주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37	내 자신이 종종 부끄럽다		
38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39	할 말이 있으면 언제나 말한다.		
40	친구들은 나를 놀린다.		
41	형(동생)은 나를 이해한다.		
42	선생님은 내가 착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다		
43	나한테 일어난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44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45	야단을 맞을 때는 곧 마음이 상한다.		
46	대부분 사람들이 나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한다.		
47	언제나 부모가 나를 야단치는 것 같이 느낀다.		
48	학교에서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다		
49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은 별로 없다		
50	나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편이다		

<부록 2>

노래중심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

1회기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활동 목표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긍정적인 존재감 느끼기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향상)		
	활동순서	시간 (50분)	도구
도입	1. 진행자 소개와 프로그램 안내 2. 활동 참가 구성원 자기소개 3. 시작하는 노래 배우기 (Hello song).	10'	*건반악기(또는 기타) *노래 CD *악보 유인물
전개	1. 노래감상, 가사 읽어보기 2.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 노래 배우고 간단하게 수화로 표현한다. 3. 노래토론하기 - 노래 가사에 대해 설명 또는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4. 노래 만들기 - 가사 내용의 일부분을 자신의 생각에 맞게 바꾸어 불러 보도록 한다. 5. 모두 손을 잡고 서로에게 불러주듯이 원곡을 합창한다.	35'	
정리	1. 끝나는 노래를 배운다 - Good Bye Song 2. 다음 활동 시간과 노래를 안내	5'	
유의 점	1.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 한다. 2. 노래를 통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활동 주안점 : 노래를 배우는 과정에서 간단한 수화의 표현을 배우고 노래가사에 따라 손동작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상대방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게 되고 자신이 새롭게 만든 가사를 낭독하고 부름으로 인해 자긍심을 지니게 한다.

2회기 - 어머니께			
활동 목표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 표현을 할 수 있다. (가정에성의 자아존중감 향상)		
활동순서		시간 (50분)	도구
도입	1. Hello song 2. 한사람 씩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발표해 보며 인사하기	10'	*건반악기(또는 기타) *노래 CD *악보 유인물
전개	1. 노래 가사 읽어 보기 2. 노래 감상 3. '어머니께' 노래 배우기 4. 노래 토론하기 - 자신의 경험을 이야 기해 본다.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기억이나 생각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5. 노래 만들기 - 가사 내용의 일부분을 자신의 경험에 맞게 만들어 본다. 6. 자신이 만든 노래가사를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나레이션 하기. 7. 모두 원곡을 제창하기	35'	
정리	1. Good Bye Song 2. 다음 회기의 활동 시간과 노래를 안내	5'	
유의 점	1. 발표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지적해 주기를 바라는 학생을 잘 살핀다. 2. 노래를 통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활동 주안점 : 노래 감상하기를 하고 난 뒤 가사에 대한 토론을 하며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 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보여 주었던 고마움을 되새기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한다.

3회기 - 아름다운세상			
활동 목표	학교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향상)		
	활동순서	시간 (50분)	도구
도입	1. Hello song 2. 한사람 씩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발표해 보며 인사하기	10'	*건반악기(또는 기타) *노래 CD *악보 유인물
전개	1. 노래 가사 읽어 보기 2. 노래 감상 3. 노래배우기 - 경쾌하고 빠른 리듬이지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4. 노래 토론하기 - 자신의 경험을 이야 기해 본다. 5. 노래 만들기 - 가사 내용의 일부분을 자신의 경험에 맞게 만들어 본다. 6. 간단한 수화를 가르쳐 주어 율동하며 부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35'	
정리	1. Good Bye Song 2. 다음 활동 시간과 노래를 안내	5'	
유의 점	1. 긍정적인 강화를 해 준다. 2. 노래를 통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활동 주안점 : 노래 가사의 ‘같은 태양 아래’ ‘우린 하나’ ‘우리 함께’ 등의 노랫말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경쾌함, 빠른 템포와 변화 있는 역동성은 활동 참가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가사의 내용을 더욱 공감하게 해 주어 서로의 친밀감과 생활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 준다.

4회기 - 나는 문제없어			
활동 목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기 (사회적 자아존중감 향상)		
활동순서		시간 (50분)	도구
도입	1. Hello song 2. 한사람 씩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발표해 보며 인사하기	10'	*건반악기(또는 기타) *노래 CD *악보 유인물
전개	1. 노래 가사 나레이션하기 - 지도자와 모두 함께 2. 노래 감상 3. 노래배우기 - 한글을 능숙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두 마디씩 지도한다. 4. 노래 토론하기 - 용기가 없어서 겪었던 억울한 기억이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 기해 본다. 5. 노래 만들기 - 가사 내용의 일부분을 자신의 경험에 맞게 만들어 본다. 6. 자신이 만든 가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5'	
정리	1. Good Bye Song 2. 다음 활동 시간과 노래를 안내	5'	
유의 점	1. 춤을 추거나 율동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학생에 대해 자유롭게 허용한다. 2.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보다 크지 않도록 한다. 3. 노래를 통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활동 주안점 : 나는 문제 없어의 '나'를 '우리'라는 단어로 바꾸는 경험을 통해 소속간의 향상을 유도하고, '나는 문제없다'는 단언의 말을 통해 자신감의 회복 및 향상을 돕는다.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가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 뒤,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꿈,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같은 또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게 한다.

5회기 - 너를 지키는 힘			
활동 목표	자신의 장점과 친구의 장점을 말 할 수 있다. (일반적 자아존중감 향상)		
활동순서		시간 (50분)	도구
도입	1. Hello song 2. 한사람 씩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발표해 보며 인사하기	10'	*건반악기(또는 기타) *노래 CD *악보 유인물
전개	1. 노래 가사 나레이션하기 - 지도자와 모두 함께 2. 노래 감상 3. 노래배우기 - 한글을 능숙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두 마디씩 지도한다. 4. 노래토론하기 - 자신의 장점이나 자랑할 점들 이야기하기 5. 노래 만들기 - 노래내용 중 빠진 부분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 넣기 6. 자신이 만든 가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5'	
정리	1. Good Bye Song 2. 다음 활동 시간과 노래를 안내	5'	
유의 점	1. 언어적이 표현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적절한 단어를 제시해 준다. 2.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보다 크지 않도록 한다. 3. 노래를 통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활동 주안점 : 조용하고 레가토적인 멜로디는 활동 참여자들에게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목표로 하는 활동에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자신이 생각한 노랫말을 넣어 부르는 활동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내면의 상태를 관찰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힘을 발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6회기 - 아빠 힘내세요			
활동 목표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소중함 생각하기.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향상)		
활동순서		시간 (50분)	도구
도입	1. Hello song 2. 한사람 씩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발표해 보며 인사하기	10'	
전개	1. 노래 가사 나레이션하기 2. 노래 감상 3. 노래배우기 - 한글을 능숙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두 마디씩 지도한다. 4. 노래 토론하기 -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야기 하기 - 아버지와 있었던 기억 5. 노래 만들기 -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정에 어울리는 가사를 만들어 본다. 6. 자신이 만든 가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5'	*건반악기(또는 기타) *노래 CD *악보 유인물
정리	1. Good Bye Song 2. 다음 활동 시간과 노래를 안내	5'	
유의 점	1. 안 좋았던 기억을 말하게 되는 경우에도 발표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뒤 아버지에 대한 바램이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방향의 노래가사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자유롭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한다.		

활동 주안점 : 노래를 부르고 가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부모님과 좋은 추억과 기억에 남는 일 등을 나눈다. 부모님께 못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며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 볼 수 있다.

7회기 - 친구에게			
활동 목표	친구에 대한 칭찬을 표현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향상)		
	활동순서	시간 (50분)	도구
도입	1. Hello song 2. 한사람 씩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발표해 보며 인사하기	10'	*건반악기(또는 기타) *노래 CD *악보 유인물
전개	1. 노래 가사 나레이션하기 - 발표하고 싶은 사람 2. 노래 감상 3. 노래배우기 - 지도자가 구성원 한 명씩 돌아가며 선택하여 노래의 빈 칸에 그 친구에 대한 칭찬 내용을 넣어 부른다. 4. 노래 토론하기 - 한 명씩 일어나도록 하여 그 친구의 칭찬을 한 마디씩 이야기 한다. 5. 노래 만들기 -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든 내용으로 노래의 빈칸에 넣어 부른다. 6. 자신이 만든 가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5'	
정리	1. Good Bye Song 2. 다음 활동 시간과 노래를 안내	5'	
유의 점	한 사람씩 일어났을 때 구성원들의 피드백이 없을 때 지도자가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제시 해 주고 유도할 수 있다.		

활동 주안점 : 친숙한 멜로디는 참여자에게 친근한 감정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참여자 서로간의 칭찬을 넣어 부르는 활동은 평소에 말로 하기 힘든 서로에 대한 칭찬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룹간의 일체감을 주며, 서로에 대한 더욱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회기 - 거위의 꿈			
활동 목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 향상)		
활동순서		시간 (50분)	도구
도입	1. Hello song 2. 한사람 씩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발표해 보며 인사하기	10'	*건반악기(또는 기타) *노래 CD *악보 유인물
전개	1. 노래 가사 나레이션하기 - 작은 소리로 노래를 틀어준다 2. 노래 감상 3. 노래배우기 - 한 소절 씩 따라 부른다. 4. 노래 토론하기 - 노래 가사를 듣고 떠오르는 내용과 노래내용에 대한 이해를 질문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5. 노래 만들기 - 자신의 꿈에 대해 한 사람씩 발표하도록 하고 노래가사에 넣어 부르도록 한다. 6. 큰 소리로 합창한다.	35'	
정리	1. Good Bye Song 2. 다음 활동 시간과 노래를 안내	5'	
유의 점	노래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원곡의 음반을 틀어주어 같이 부르게 한다.		

활동 주안점 : 노래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참고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어려운 환경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의 미래의 모습 속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